

청년기심리(青年期心理)

趙 斗 英*

Psychology of Young Adulthood

Doo-Young Cho, M.D.*

— ABSTRACT ————— *Korean J Psychosomatic Medicine* 5(2) : 223-236, 1997 —

One faces four major developmental tasks to achieve in young adulthood, ages between 20 and 40 : intimacy, vocation, marriage and child-rearing. Intimacy is the capacity to commit oneself to concrete affiliations and partnerships and to develop the ethical strength to abide by such commitments, even though they may call for significant sacrifices and compromises. Through vocation and marriage young adults become united to networks of persons, find tasks that demand involvement, and gain roles into which they fit and are fitted and which help define their identities. An occupation represents much more than a set of skills and functions : it means a way of life. The extent of vocational choice increases with educational level, and the unconscious factors are frequently the decisive element. The vocational choice starts with fantasy choices in childhood, passes through tentative choices in adolescence, realistic choices in college days, and crystallized choices in post-college days, and finally ends up to the choice of specification.

Along with the hazards and the need for realignment of personality functioning, the marriage brings with it new opportunities for self-fulfillment and completion. Motives other than a romantic love gain more importance in the decision to marry and in the choice of a partner. The impulsions to marry are sexual gratification, the desire to propagate, narcissistic gratification, and a need of interdependence. Many factors such as oedipal wishes, sexuality and sexual attractions, socio-economic classes, and geography involve in selection of marriage partner. There are also various motivations to marry : a romantic love, the desire for a home of one's own, sexual attractions, the wish for security and a shelter, and the wish for children. The hostile marriage, the marriage on the rebound, the marriage rooted in rescue fantasies, and sado-masochistic marriage are the examples of pathological marriages. A successful marriage will usually both lead to and require a marked reorganization of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each partner that will influence the further personality development of each. Many marital problems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re largely dependent upon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one partner which might well create difficulties no matter who was the spouse.

KEY WORDS : Adulthood · Marriage · Occupation.

인생주기(人生週期, life cycle)를 크게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라는 다섯 시기로 나누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는 바 이지만, 문제는 우리말로 '청년기'라는 명칭이 다소 혼란을 가져 올 요소가 있다는 데에 있다. 우리말로 청년기가 일상에서 20대를 칭할 때가 많은데다 그냥 '청년'이라 부를 때는 마치 20대 전반의 총각만을 뜻한 뉴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대신 '성인전기'(成人前期) 또는 '초기성인기'(初期成人期)로 부르고 있어 학술용어로 객관적 타당성을 갖기는 하나 이 또한 우리 귀에는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한편 그래도 '청년기'라 부르는 사람들(趙斗英 1985; 李載昇 1996)이 있는 터이니 여기서는 그냥 '청년기'라 부르기로 한다.

이 청년기를 어떻게 잡느냐는 것도 전문가마다 다르기는 해도 근래에 와 보통 20~40세로 잡는 사람들(李載昇 1996; Gemelli 1996; 洪剛義 1997)이 많다. 대체로 청년기의 시작은 부모에게서 심신(心身)으로 독립해 취업하고 결혼하는 때로 잡으며, 그 종료는 정신없던 자녀 양육에서 한 시름 놓고 직장과 사회에서 안정된 자리를 유지하게 된 시점으로 잡는다.

청년기 과도기(青年期 過渡期)

Yale대학교수 Levinson(1978)은 청년기를 다시 청년기 과도기(17~22세), 청년기 초기(22~28세), 30세 과도기(28~33세), 정착기(33~40세)라는 넷으로 쪼개 보았다. 즉 청소년기에서 곧바로 청년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 그 중간에 과도기(過渡期)를 거친다고 보는 것이 어느 면으로는 이해가 더 쉬우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과도기로 대학생 시절과 군인시절을 들 수 있다.

1. 대학생시절(大學生時節)

대학은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라면 큰 일날 행동도 모두가 참고 어여뻐 봐준다. 그래서 대학

생들의 심적 갈등은 쉽사리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바, 이들의 그 주요 심리갈등과 정신적 문제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다(Seil 1974).

첫째, 정체성 확립(identity formation)이나 정체성 와해(identity diffusion)나 하는데서 오는 갈등이다. 직업·역할·가치·성(性)에 대하여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야 되겠느냐는 결정을 내리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그런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상태가 오래 계속하면 불안·우울·혼동·소외감·고독이 오고 더 심해지면 정신증까지로 발전한다.

둘째, 독립이나 의존이냐의 갈등이다. 대학시절이란 신체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시기(예로, 하숙·기숙사 생활)이며, 감정적으로도 그러한 시기로 새로운 어른인 대학교수·선배들과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집을 떠나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부모가 반대하거나 노여워한다고 생각된다면 그 학생에게는 종전까지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dependence) 때문에 갈등이 온다. 이때의 증상은 우울증과 분리불안으로서, 그는 갈등을 헤쳐나갈 그릇된 길을 택하여 성적(性的)방종·자살기도·과식·과음·강박증·학업실패·가출이라는 반응을 한다. 대학생이 어느 한쪽 부모에게 지나치게 영향을 받으면 그쪽의 기대에 따라 행동을 하므로 곧잘 정신중 상태로 될 수 있다.

셋째, '가까움'(친밀, intimacy)이나, '외톨' (고립, isolation)이냐의 갈등이다. 대학생은 새로운 친구,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고 사귀어야 한다. 그에게는 일생을 통해 이렇듯 타인과의 친교가 가족을 제외하고는 강요된 적이 없다. 그가 이런 것에 실패하면 그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의 자아가 이제까지 건전하게 발달되어 오지 못했다면 그는 친교를 겁내고, 그 사회에서 그에 부여한 임무를 잘 해 내지 못하고 또 그런 임무를 아예 부여받지도 못할 것이다.

넷째, 성(性)에의 탐닉이나, 금욕이냐의 갈등이다. 성에 너무 빠져들면 도덕적 갈등이 일고, 금욕생활로 일

관하면 친구들 꽤 못끼어 외톨이가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학업에 관한 것이다. 공부해야겠다고 책상에 앉으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집중이 안되는 학생들이 많다. 대개는 가족문제·사회생활문제로 고민하는 경우에서, 또는 강박관념·성문제·죄책감 때문에서 오는 수가 많다. 또 어떤 학생은 학교공부 외의 것은 다 잘하면서 유독 전공과목에만 실패를 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이유에서이다. ① 새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② 겉으로는 부모 영향권을 벗어난 듯하나 실상 내심에는 아직도 의존성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런 실패로 주위 어른들과 교수들에게서 꾸중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그 숨은 의존성을 만족시켜 주는 결과가 나오니까, ③ 지배적이고 사사건건 간섭하기 좋아하는 부모에 대한 대항·분노·복수·반역의 의미에서, ④ 내가 성공하면 아버지가 나를 거세(去勢)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인데 이는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그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이다.

시험때만 되면 불안해지는 학생도 있는데 이를 시험불안(test anxiety)이라 한다. 이때의 학생심정은 의식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무의식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 또는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실패를 원한다는 이율배반적 상태에 놓여 있어서 그런 것이다.

여섯째, 중퇴와 휴학문제다. 우울증이 심하거나 정신질환이 오는 경우 학생은 중퇴를 끝낼 생각하는데, 이때 학교당국에서 이해를 해 주고 학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시켜 주면 중퇴를 쉽게 방지할 수 있다. 휴학 역시 비슷하게 방지할 수 있는데, 휴학은 대개가 정체성위기(identity crisis)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미국 쪽 이야기다. 누가 시켜서 또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공부해야겠다는 심정이 좀 지나면 생기기 때문에 휴학생은 대부분이 1년 뒤에 복학한다.

2. 군대시절(軍隊時節)

입대(入隊)한다는 것은 집·부모·가족친지를 떠나 낯설고 생명이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환경으로 진입하는 것이어서 남자라면 누구나 불안에 떠는데, 이는 일종의 분리불안(分離不安, separation anxiety)이다. 즉 근원이 어려서 어머니와 떨어질까봐 떠는 데에 있는 것으로, 다시 이것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시에 더러 경험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징집대상자 일부는 온

갖 지혜를 짜내 징집면제를 받으려 한다.

신병(新兵)훈련시절과 근무초반에는 상관(上官, authority)과의 관계에 신경을 쓴다. 훈련교관이나 부대 상관은 실제로 무서운데다 어려서 아버지를 무섭게 여겼던 사람은 상관을 아버지로 보니 상관이 더욱 무섭게 보인다. 또 짓곳은 고참(古參)은 어려서 자기를 못살게 굴던 형이나 아저씨로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신병의 행동과 대인관계는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 상관과 고참에 대해 정도에 지나친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극도의 순종형이 있는가 하면 편집증(paranoid)적으로 되어 갈 수도 있고, 몹시 민감해져서 별 것 아닌데도 충동적으로 반항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군(軍)은 남성사회이며, 문자 그대로 살을 대고 살아야 되는 사회이다. 그래서 동성애(同性愛, homosexuality) 성향이 농후한 남자들은 충동자제가 어려워진다.

자발적으로 남과 친해보지 못했던 사람은 입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입대동기생끼리 상부상조해야 살아남기가 쉬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먼저 남에게 정(情)을 줄 줄 몰라 자기가 궁지에 빠질 때도 외톨이가 된다. 이런 사람은 훈련시절부터 쉽게 눈에 띄어 주위의 눈총과 미움을 사고, 부대 근무에서도 고통받는다. 전우애(戰友愛)가 생겨 날 리 없는 이들과는 누구도 함께 하려 하지 않으니, 이들은 친밀감(親密感, intimacy)정립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사병(士兵)생활은 퇴행(regression)의 연속이다. 똑같은 조건의 단체생활에다 '생활 아닌 생존'만을 목적으로 항상 명령복종에만 길들여져 있으니 부모 지시에만 의존하는 어린시절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 거기에서 개성이 박탈당하고, 개인적으로 부각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병들은 쉽게 퇴행한다. 그래서인지 상관으로 분대장 이상만 되면 기리기리 모여서는 자기 대원들을 '우리 아이들'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년기 과업(青年期 課業)

청년기에 인간이 이룩해야 할 심리적 과업(課業)이란 무엇인가?

공자(孔子)는 일찌기 사람은 '30세가 되면 뜻을 세우고 일어선다'(三十而立) 하였는데, 이는 부모나 그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주 독립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Erikson(1950, pp.264-266)의 말을 빌리자면 Fr-

eud는 '일 할 수 있는 능력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성취'를 이 시기 과업으로 잡았다.

Jung은 '개별화'(個別化, individuation)를 이 시기 과업으로 들었다. 개별화란 현실파악능력과 현실대처능력을 지니면서 자기(自己, self)를 지켜나가는 심리현상으로서, 이는 자기가 속한 사회체계와는 확연하게 분화된 자아정체성(ego identity)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 하였다. 이때 인간이 충분한 개별화를 성취하는데에 실패하면 그는 '자기를 부정하고 사회에 순응하는데만 신경을 써서 사회에 '세뇌'당하고 사회에 '팔려버렸다'고 불리는 '과순응'(overconformity) 경지에 이른다 하였다. 또 이 개별화와 정반대가 되는 개념은 인간이 사회와 동떨어져 대인관계를 맺음없이 위축된 생활을 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것을 '소외'(alienation)라 불렀다(Lidz 1983, pp.379-378). 초심자에게는 Jung의 '개별화'라는 용어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린이 발달과정에서 2~4세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구분 짓는 분리·개별화 개념의 '개별화'용어가 일반적으로 더 두루 쓰이기 때문이다.

Erikson(1950)은 심리사회적 발달(psycho-social development) 측면에서 인간이 이 시기에 이룩해야 할 과업이 남과의 '가까움'(또는 친밀·친근, 親密·親近, intimacy)이라 하였다. 이제 인간은 자기 정체성(identity)을 찾았고, 또 이를 확고히 다진 마당이니 그 다음으로 이룩할 것이 '가까움'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저 남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말로 오해하여 사회성이나 사교술을 연마하는 것으로 아는 초심자가 많은데, 그 정확한 뜻은 이렇다 ——. '가까움'이란 남과 맺는 관계나 연합에 자기를 주저없이 투신하는 능력이며, 실사 그런 남과의 관계 때문에 희생당하고 손해본다 쳐도 한번 맺은 이상 그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윤리적 힘(ethical strength)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즉 이 '가까움'은 친구관계·남녀관계·친지관계에 있어서, 육탄돌격전에 있어서, 스승에게 배워 얻은 진리를 옹호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스스로 깨우쳐 얻은 소신과 영감(靈感, intuition)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자아(ego)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버티는 능력을 말한다(p.262-263). 그러니 이는 사랑·소신(所信)·신의(信義)를 바탕으로 자기가 고른 사람과 확고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Erikson은 이 '가까움'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멀리함'(또는 거리두기, 소원관계, distantiation)이라 정의하면서 이 역시 '가까움'을 얻기 위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멀리함'이란 나와 내 영역을 좀먹을 위험이 있거나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이들의 영역을 좀먹을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세력과는 담을 쌓고 지내면서 필요하면 일전불사(一戰不辭)하겠다는 자세를 지님을 말한다(p.263-265). 그리고 보니 Erikson은 이 시기 인간의 과업을 '나·우리'와 '적(敵)을 딱 부러지게 구분해 놓고 사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가까움' 달성에 실패할 때 오는 것이 '고립'(孤立, isolation)이라고 Erikson은 말하고 있다.

이 시기의 인간은 자기 부모와 구분되는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독립·자립의 길을 걸으니 이제부터 부모는 그의 인생에서 덜 중요해 진다. 설혹 부모와의 관계가 불행했더라도 그는 이제 친구재미·결혼재미·직장재미를 가지고 안정과 행복을 보충한다. 그의 자아(ego)는 이제 즉각 만족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데서 오는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니, 이것이 바로 자제력의 증대다. 긴장과 좌절은 그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우울상태로 만들지만 그는 이에 굴해 쉽사리 술·약·과수면·말초신경자극 같은 함정에 빠져들지 않는다. 좌절이란 인생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매진하기로 한 약속(commitment)을 지키며, 한눈 팔지 않고 목표를 향해 걸어 나간다. 그는 정체성을 잃을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굳이 자타에게 사내다움이나 여자다움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는 타고난 성별(性別, gender)을 원망없이 받아들여 그 태두리 안에서 장점과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이제 정신성적 발달(psycho-sexual development) 선상에서 '진정한 성기기 성성'(性器期 性性, true genital sexuality)에 이르는데, 이는 이성(異性)과, 그것도 어느 특정한 한 사람과 맺는 의미있는 '가까운' 관계에서 육체를 나누며 상호간 오르기슴을 맛보는 상태를 두고 말한다. 요컨대 이 시기의 심리과업은 남과의 '가까움'을 성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우·취업·결혼·육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 하겠다(Havighurst 1972; Levinson 1978; 趙斗英 1985; 李載昇 1996; 洪剛義 1997).

일과 직업

1. 일과 직업(職業)

일이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어떤 일(work)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가를 아는 길이 장본인 성숙도를 알아보는 길이다. 그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내적 욕구가 얼마나 만족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일이란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쓰는 것으로서, 원래는 적대적·파괴적 목적과 관계 깊은 곳에서 생긴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쓴다는 것이다.

직업(職業, occupation)이란 그 사람이 지닌 기술과 기능의 차원을 넘어서 그가 사는 인생의 길이다. 그래서 직업을 보면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직업은 성격(性格)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같은 운전기사이지만 택시기사와 장거리트럭기사는 성격도 다르고 직업병도 다르다. 또 여성전문직이라도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수동적(passive)성격의 소유자이나 여자변호사는 적극적(aggresive)이고 지적(intellectual)이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 적합한 직업이 있는가 하면 직업에 따라 성격이 영향받는 경우도 많다.

과거에는 동서양 모두에서 직업선택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즉 50년 전 한국을 예로 든다면 당시는 75%의 국민이 농민으로서 그저 대를 이어가기만 하면 되었다. 구멍가게도 역시 대를 물려 하였고, 여성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그러다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직업의 종류가 많아졌고, 그리고 직업이 당사자의 인생 길을 좌우하면서 직업선택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근래에는 직업선택을 당사자인 자식에 게만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동양은 물론 서양사회에서까지 생겨나고 있다(Lidz 1983).

2. 직업선택(職業選擇)

현대인은 그 모두가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가지려는 압력을 내외에서 받는다. 현대인은 살아가면서 점차 승진하는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직업보다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만은 나보다 낮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려고 애를 쓴다. 이때 그로 하여금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데 관여하는 요소로서는 (1) 부모의 직업(높을수록 좋다), (2) 본인이 정규교육을 받은 연한(높을수록 좋다), (3) 가족수(적을수록

좋다), (4) 집안에서 교육을 보는 눈(욕심을 내고 또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 좋다)을 든다.

반대로 좋은 직장·직업 향유를 방해하는 요소로서는 (1) 별거나 이혼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들, (2) 형제자매 수가 많음, (3) 집안의 교육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은 경우이다.

그러나 그 좋은 직업과 직장에서 승진하면 할수록 그는 그의 주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열을 내어 더 봉사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가능성을 점차 잃는다(Sofer 1974).

사람에 따라서는 직업을 선택할 여지가 적은 수도 있는데, 대개 문화적·경제적 제약이라든지 신체불구같은 것이 그런 이유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막상 인생을 좌우할 이런 중대한 결정을 실은 상당수의 경우 그가 인간적으로 성숙하기 이전에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 속달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직업일수록, 그리고 경쟁이 심한 직업일수록 일찍 선택·결심해 거기에 맞춰나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醫師의 경우가 그렇다. 즉 인격이 성숙하기 전에, 그리고 세상살이에 대한 지식과 인생경험이 충분히 쌓이기도 전에 이런 선택을 해 놓아야 할 판이다. 그러니 결국은 기회의 유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인상, 남들의 권고·조언에 따라 직업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즉 직업선택은 자동적으로 얻어진 것과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진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직업선택범위는 학력(學歷)이 높을수록 넓어지고, 낮을수록 좁아진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졸업자보다 돈벌이 액수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는다 해도 인생살이의 질(質)과 수준은 대학졸업자가 더 높다.

직업선택에 관해서는 세 가지 설(說)이 있다. 그 첫째가 우연(accidental)설로, 이는 어쩌다 보니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경우인데, 실은 이는 선택도 아니다.

둘째는 충동(impulse)설로서, 주로 정신분석가들이 내세우는 것이다. 주인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있던 그 어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충동들의 영향을 받아 그런 직업을 택하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예컨대 의사(醫師)가 되는 동기로서 '아버지와 비슷해지기 위해서', '약사(藥師)인 아버지를 능가하기 위해서', '자기를 태어날 때 받아 준 산부인과 의사를 우상시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어머니 목숨을 앓아간 암과 싸

우기 위해서', '누나를 정신요양원으로 데려가 버린 정신분열병의 치료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돈벌고, 사회에서 선생님 소리 듣기 위해서', '어려서 부터 두려워했던 죽음과 역공포(counter-phobic)적 입장에서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나 죽는 것임을 자신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또는 '위대해지지 못할진대 최소한 남에게 유용하게 되고자 해서'등을 들 수 있겠다. 또 프로 권투선수는 거의 모두 어려서 포악한 아버지에게서 매 맞고 자란 과거가 있으며, 그래서 그는 '커서 반드시 아버지를 때려 눕히겠다고 맹세하고 자라서' 그리 되었다고도 보겠다. 또는 탐험자가 된 이유가 '어려서 부터 심했던 어머니에게서의 이별불안(separation anxiety)을 극복키 위해서' 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세번째 설은 '교육학적(pedagogic)설'로서, 이는 심사숙고하고 의논해서 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직업선택 과정은 어떤가. 사람은 대개 직업을 불쑥 선택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대개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자기 개인발달에 맞추어 직업선택이 변해간다. 직업이란 실은 그 개인이 지닌 사람됨됨이(personality)의 총결산이 작용하여 선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끝까지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학력이 높아질수록 만이 이를 모두 거친다.

첫째는 '환상에서 선택하는 시기'(period of fantasy choice)로, 어린시절이 그러하다. 아이들은 어려서 자기 또래와 놀이(play)를 하면서 그가 거기서 하는 역할과 연유된 직업을 환상에서 선택한다. 예컨대 골목대장은 대통령을 꿈꾸며, 인형을 얘기라고 귀엽게 돌봐주다가 어른들 눈에 띄어 칭찬받은 여자 아이가, 후에 친동생을 그렇게 잘 돌보아주어 바쁜 어머니의 짐을 덜어 주고 다시 여기서 어머니의 칭찬을 받게되게 되면 그녀는 장차 간호사나 유치원 보조, 사회복지가의 길을 택할 공산이 높다. 아이들에게는 이상과 영웅이 있으니 예컨대 우주비행사, 농구선수, 탈렌트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나 어린시절의 이런 선택은 대부분이 너무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다.

제2단계는 '잠정선택기'(period of tentative choice)다. 십대인 중고등학교시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제 그는 자기능력을 아는데다 현실적 제약마저 알게 되어 목표를 수정한다. 그는 부모나 선생 영향을 받아 가급적 이들 조언에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 저것

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기다. 직업목표의 수정이 일어나 대통령의 꿈은 기관장으로, 농구 영웅의 꿈은 언론매체 체육분야 보도자로, 신사임당이나 김활란(金活蘭) 여사 숭배자는 여학교 교장으로 목표가 좀 덜 비현실적으로 된다.

세째 단계는 현실적 선택기(period of realistic choice)로, 이때는 대학시절이다. 그에게는 직업선택에 새로운 지평선이 열리고, 선택에서 그는 현실적이 된다. 그리고 이상(理想)을 실현하기 까지에는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다. 이 시기의 직업선택은 대개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직업을 찾는 방향으로 이는 인생을 재미있게 살려는 쪽의 사람들이 추구한다. 다른 하나는 생활보장과 힘(power)을 주는 직업을 찾는 방향으로, 이런 사람들은 집안과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며, 또 골프·서화수집·주지육림(酒池肉林)·해외여행같이 돈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을 노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대개 전자(前者)에서 후자(后者)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한다.

네번째는 '선택이 결정(結晶)을 보는 시기'(period of crystallization)로서, 이때는 친한 선배 한 둘이 이미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남들이 덜 찾는 그런 직업들이 인기가 있다.

다섯째인 마지막 단계가 '선택 구체화기'(period of specification)로서, 이때 그는 여기 저기 쏟았던 관심과 흥미를 버리고 어느 한 직업으로 들어간다. 그는 가정·돈·사회적인정에서 오는 만족을 뒤로 미루고 자신의 흥미·개성·장점을 고려하고 통합해서 직업을 정한다. 예컨대 심리학도로서 원래부터 수학을 잘 하였던 사람은 통계방법론에 몰두하고, 인문과학에 흥미를 가진 심리학도는 임상심리학이나 상담심리학을 전공할 것이며, 예술적 안목을 지녔던 심리학도는 작가심리연구로 들어갈 것이다.

3. 직업과 성격(性格)

성격특성과 직업은 서로 크게 영향을 끼친다.

우선 성격특성을 중심축에 놓고 생각해 보자. 한 개인의 성격특성(性格特性, personality characteristics)은 그의 직업선택에 크게 작용하는데 이를 직업적성(職業適性)이라한다. 즉 구강성격(oral character) 소유자는 요리사·영양사가 어울릴 것이고, 또 이들은

먹을 것을 평소 넉넉히 확보하기 위해 돈벌이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항문성격(anal character)소유자라면 근검절약에 이력이 나 있어 돈에 관계있는 은행원이나 전당포 운영이 좋겠고,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점 때문에 대학교수·연구가·기획가로서 적성일 것이다. 남근성격(phallic character)소유자라면 권력지향적이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을 것으로 예컨대 정치가·배우·행정가·장교 같은 직업이 적격이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나운서·교육자·국회의원·변호사·시의회의원·무당·목사·약장수·연극배우·교회전도사의 인생을 건게 될 소지가 크다. 반대로 말 수가 적은 사람은 창작가·철학자·운명감정사·정신치료가·무언극배우같은 직업에 끌릴 것이다. 매사에 의심이 많은 사람은 형사·세무서원·감사·세관원·보험회사원·정보원으로 나가면 적격이겠다.

중간에 직업이 바뀌는 경우가 근래에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수명연장과 문명 발달로 직종이 많아졌음이 주원인이다. 정년퇴직한 경찰관이 수위가 되고, 대학교수가 자유기고가가 되며, 오페라 가수가 음악 과외선생이 되는 것이 그 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변신했다지만 근본에서는 자기 성격특성 그대로를 새 직업에서 발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혀 다른 직업을 택한 극단한 예로 비뇨기와 전문의사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주인공의 심리특성은 변하지 않았다. 즉 남근(男根)을 중시하는 심리에서 그는 일찍이 비뇨기과를 전공해 자기 고객의 남근을 우러러 받들었으며, 새 직업인 주유소 운영도 알고보면 목직한 주유기(注油器)가 그 무게·굵기·모양에서 남근과 유사한 데다 게다가 '기름'이란 많은 남성사회에서 쓰는 속된 말로 '남자의 정액(精液)'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주인공은 고장 잘 나는 쇠로 만든 남근을 만지는 직업에서 고장 덜 나는 쇠로 만든 남근을 만지는 직업으로 결판 살짝 바꾼 폭이다.

이번에는 반대로 직업을 중심축에 놓고 생각해 볼진대 직업이 한 개인을 성격면에서 점차 어느 한 쪽으로 몰아가며 변형시키는 경우도 많다.

그 첫번째는 원래의 자기 성격기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직업들이 있다. 이는 자기가 편하게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직업과 직장을 찾는 경우로서, 그렇게 되면 원래의 자기 성격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에 이(利)롭다. 그 직업과 그 직장에서 그는 자기 양심(良心)의 소리 보다 집단의 가치관과 상사의 가치관에 더 동조하게 된다. 예컨대 광고회사 입사자들은 평소 '진실'을 그리 중요시않는 사람들이다. 광고회사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들이 모인 사회인지라 그곳에서는 그런 소질을 가진 사람일수록 유능하다고 쳐준다.

둘째, 초자아(超自我, superego)가 필요한 직업이 있고, 또 거기에 뛰어들면 계속해서 양심이 커져가는 바로 그런 직업도 있으니 예컨대 성직자·판검사·경찰·의사 같은 직업이다.

세째, 직업에 따라 성격특성을 특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있다. 예컨대 의사라는 직업이다. 여기에 일단 들어서면 그는 사람생명을 다루느라고 강박적일 정도로 치밀해지며, 환자에게 베풀듯이 대인관계에서 베풀고 감사해 할 줄 알게 되며, 환자의 고통과는 다소 감정적 거리를 둔다는데서 출발해 평소에도 자기 감정을 감추거나 억압(repress)하게 된다. 그리고 병어기제로 주지화(主知化, intellectualization)를 잘 쓰는 버릇이 생긴다.

가까운 형제간이나 친구사이라도 직업을 달리 가짐에 따라 생활양식·대인관계·기호에서 차이가 벌어져 뒤에 가보면 성격에도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직공이 된 형은 저녁에 동료와 함께 삼겹살에 소주를 훌쩍이거나 고스톱치는 것과 같은 이드 충동(id impulse)에 따라 행동하기 쉬운 중년으로 변하게 되는 반면 신부(神父)가 된 동생은 신도 간부들인 상류사회 인사들과 어울리며 초자아의 만족을 위해 승화(sublimation)와 금욕주의(asceticism)라는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으로 변한다.

4. 직장생활(職場生活)

농담삼아 '한 밑천 잡으면 은행에 집어넣고 무위도식으로 여생을 보내겠다'는 사람에게 정색을 하고 "정말 그러겠느냐?"고 다져 물을 때 대개는 "아니, 일 하겠다"는 대답이 나온다. 그때 대는 이유로는 일을 한다는 것이 '마음을 한 군데에 쓰기 위해서', '건강유지를 위해서', '자존심 유지를 위해서' 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work)한다는 것의 의미란 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세상을 안다는 것이요, ② 자기가 세울 사회 속에서의 지표를 찾아낸다는 것이요, ③ 인간성·권력·자주성

을 부여받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직장생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1) 사사로움과 개인공간이 적다. 그는 남들 앞에서 일해야 하니, 지나치게 자유를 찾거나 수줍은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다.

(2) 상사 눈에 들어야 한다. 승진과 월급인상이 상사 손에 달렸으니 아니꼽지만 눈치를 보아야 한다. 어려서 부모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상사를 자칭 부모를 보고 부지불식간에 대드는 수가 가끔 있는데 이러면 어렵다.

(3) 자기 감정을 눌러야 한다. 끈이 끈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성격의 소유자는 배겨나기 힘들다.

(4) 상사·동료·부하와의 인간관계에 마음을 써야 한다. 그러므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운영 못하는 사람은 외톨이가 된다.

(5) 관료체제 속에서 대부분이 일한다.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런 관료체제가 개성을 찍어 누를 것 같으나 자세히 조사해 본 사회심리학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더 속이 트였고 소신 발휘를 상호간에 존중하더라는 것이다. 그 까닭은 그런 직장일수록 회사가 커서 안정이 되어 있는데다 급료가 많고, 또 더 복잡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실은 자율성과 개성이 더 발휘·보장된다는 것이다.

미국 조사로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처음에는 큰 회사에 입사했다가 뒤에 작은 곳으로 옮기며, 돈 욕심이 적은 사람은 처음부터 작은 회사에 들어가 계속 눌러 앉는 현상을 보였다. 또 직장인 과반수가 직장생활에서 그 어느 두 윗사람이나 두 과 사이의 갈등이 진행되는 상황속에 끼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집단간의 갈등속에서 하는 생활이 근대사회 직장의 특징이다.

이러 이러한 직장인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 자주 통계로 되어 나오는데, 두 예(News Plus 1997)를 소개코자 한다. 그 하나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 3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로서 부하가 싫어하는 상사의 유형으로 권위주의형, 부하직원을 편애하거나 편견을 갖고 대하는 사람, 술선수범 하지않는 상사, 에스펜형 상사, 부하의 공을 채가는 상사, 개인 심부름 시키는 상사, 위에는 아부하되 밑사람에게는 질책 잘 하는 상사를 꼽았다. 그리고 상사가 싫어하는 부하직원 유형으

로서는 시키는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찾아 하지 않는 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반항하는 자,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는 자를 들었다.

일본에서의 통계로는 사라져야 할 관리직 유형으로는 아둔형(현실인식에 아둔해서 시키는 것만이 자기 일이라고 여기는 자), '과거집착형'(과거에 집착하면서 현재의 처우에 불만을 가진자), '문화도태형'(세태차 느끼게 하는 아버지같은 사람으로, 남녀차별이 몸에 배어있고, 정보화시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부하들을 밤 늦도록 술자리에 붙들어 두는 자), '보신형(保身型)'(승진만 노리면서 모험을 피하려는 자), '무골호인형'(싸울 때 못 싸우고, 자신은 못하면서 대신 부하에게 악역시키는 자)을 든 것이 있다.

결 혼(結婚)

1. 결혼(結婚)의 원동력(原動力)

결혼이란 인생 중대사(人生重大事)로서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진다. 결혼 당사자들은 그들 인생에서 매사(每事)가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풀려가리라는 것을 어렵듯이 짐작은 하겠지만 맨 정신에서 딱 부러지게 알아차리지는 못한다. 배우자와의 '성생활 면허장' 정도로 결혼을 치부하다가 그야말로 큰 코 다치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것이다.

젊은이들을 결혼으로 정신없이 몰아가는 힘, 충동, 원동력은 무엇이며, 또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 원동력(原動力)의 근원을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성(性)과 성적 매력에서이다. 넘쳐흐르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왕이면 그 대상을 성적 매력이 찰찰 흐르는 사람으로 잡고 싶어함은 인간 모두에게 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혼전성교(婚前性交)는 짜릿은 하겠지만 여기에서 인간은 정서적 만족감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면 안다.

둘째, 번식욕구(繁殖欲求)다. 이는 본능적 차원에서 오는데, 여자에게서 더욱 그러하며(Lidz 1983), 이것이 부부관계를 유지시키는 주요 요소가 된다. 즉 자기들이 낳은 자식이 자라는 모습에서 기쁨을 맛보는 재미에 인간은 부모역할을 감당해 내고 또 그래서 같이 붙어산다. 동물의 수컷은 번식욕구에서 '더 많이, 더 넓게 여기저기 씨를 뿌리려 하고', 암컷은 '좀 더 좋은 씨를 받으려고' 애를 쓴다(趙斗英 1994).

세계, 상호보충욕구(相互補充欲求)다. 인간은 자라면서 자기 부모가 자기 다른 역할을 하며, 나아가 남녀간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안다. 예컨대 반찬거리를 싸게 사고, 국을 맛있게 끓이고, 어린 아기에게 무슨 옷을 입히고 하는 것 등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못 따라감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젊은이는 속으로 자기는 '반쪽 사람'임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인간은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욕구를 느끼고, 또 그를 충족해야만 사람답게 올바르게 살 수 있음을 안다. 이러한 연유로 인간은 청소년기에 '친구사귀'를 통해 동성(同性)끼리 상호의존해보며, 이제 성인에 이르러 이성(異性)과의 상호의존을 찾게 된다.

네째, 어느 다른 한 사람과 모든 면에서 관계를 깊이 맺고자 하는 욕구다. 인간은 에디프스기(oedipal stage)에 이르면 이성편친(異性片親)을 그리지만 좀 더 커가면서 그런 단 둘만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 그것이 오히려 가족을 붕괴시킨다는 것을 안다. 대신, 인간은 가족 외에서 그런 이성을 찾아 인생 매사에서 살을 부비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이를 승화시킨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편친을 닮은 같은 또래의 이성을 찾는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심하다.

다섯째, 자기애(自己愛, narcissism)다. 인간은 자기를 보강하기 위해 자기와 같은, 자기를 닮은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간의 결혼원동력은 대체로 동물적 차원의 것이다.

2. 발달단계(發達段階)에 따른 배우자선택기준(配偶者選擇基準)

인간은 그 발달단계(developmental stage)에 따라 결혼상대로 꼽는 이성의 이미지가 변모한다.

어린 시절에는 근친상간적(近親相姦的)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즉 어린이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성편친(異性片親)을 원하거나, 또는 고모, 삼촌, 이모, 누나, 오빠와 같은 이성가족을 배필로서 그린다. 그러나 이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는 성장하며 이를 무의식 깊숙이 억압(repress)해 두지만 결혼적령기에 이르르면 이것이 막강한 영향을 발휘한다. 특히 여자에서 그러한데, 친정 아버지 닮은 나이 많은 상대와 결혼하는 여자들의 경우가 대체로 그러하다 하겠다.

(예) 첫아들 입시 뒷바라지에 전력투구한 어머니에게 그 아들이 대학 미팅에서 만나 일년간 교제해 온 여자인데 결혼상대로 어떨는지 말씀해 달라면서 여자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다. 어머니가 사진을 보니 이는 대학시절 자기의 사진이어서 아들에게 "흥측하게 굴지 말아라. 농담도 지나치구나..."라고 웃으며 말하면서도 한편 아들이 내 젊을 때 사진을 어디서 빼갔나 하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들이 펄쩍 뛰면서 "엄마, 잘 보세요. 엄마가 아네요!"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과연 자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얼핏 보는 인상은 영락없는 자기였다. 즉 아들은 부지부식간에 어머니와 흡사한 같은 또래의 여자를 골라 목욕 연애중으로서, 이는 무의식적 근친상간이라는 요소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다는 좋은 예다.

청소년기의 인간은 '완전무결한' 배필을 꿈꾼다. 여자라면 '나를 줄곧 찬미하고, 나를 줄곧 따라다니며, 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발버둥치며,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남자'를 꿈꾼다.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면 인간은 '멋진 남자', '예쁜 여자', 성적 매력이 첩첩 넘치는 사람, '몽다리' 등과 같은 용모와 매력을 중시한다.

청년기가 되면 '탕자가 붙은 수 없는 미팅으로 이성교제를 시작한다. 이때 성생활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서로는 맹약의 징표를 교환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약혼식없는 둘만의 징표교환은 공식 약혼식을 가진 경우에 비해 깨질 공산이 훨씬 크다. 여러 상대와 만나다 보면 젊은이는 서서히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의 형(型)에 관해 윤곽이 잡힌다. 또 반대로 어떤 유형의 이성이 나를 좋아하는가도 알게 된다. 그래서 남녀간 공히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상대와 결혼하게 될 공산이 아주 크다. 남자는 선택권이 있고 여자는 거부권이 있다는 말은 현대에 와서 통용되지 않는다. 여자 역시 좋아하는 남자 주위를 수 없이 뒹돌면서 상대가 말 걸어 오기를 기다리는 등의 적극적 유혹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러니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사랑에 빠지면 그에게 상대는 '최고'처럼만 보인다. 즉 청년기에는 친근감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여부가 배우자 선택의 강력한 요소가 된다.

인간이 심신(心身)으로 결혼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후보자는 실은 그리 많지 않다. 욕심으로서야 온 세상을 돌아 적격자를 찾아내고 싶겠지만 처한 인간조건이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거주구역, 직장, 사회생활의 범위와 같은 조건과 사회계층, 그리고 학연 지연같은 조건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결혼 가능성이 있는 이성과 실제로 만나는 기회는 아주 적다. 직업 중매인이 중간에 거드는 경우라도 많을 것 같지만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각자 자기 주위에서 배우자를 고르게 된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통계는 결혼의 절반 좀 넘게가 이십 불록 이내에 사는 남녀 끼리에서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말은 같은 동네, 같은 학교 동창, 같은 교회, 같은 직장, 집안 끼리 알고 지내던 사회교제 범위 내에서 대다수의 결혼이 성립된다는 말이다.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다라는 말이 맞다(Lidz 1983).

마지막, 빼놓을 수 없는 주요요소의 하나가 부모와 가족이 배우자 물망에 오른 사람을 좋아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부모가 반대하는 사람과는 결혼이 이루어 지기가 어렵고, 설령 결혼하였다쳐도 양금이 씻기지 않아 불행한 결혼생활을 할 확률이 높다.

3. 결혼동기(結婚動機)

결혼함에 있어서는 그 생물학적 차원의 원동력(原動力) 외에 심리차원의 직접적인 동기(動機, motivations)가 여럿이 있으니 이를 하나씩 짚어 나가며 그 장점과 위험요소를 살펴보자.

첫째,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에 빠져서 이다. 일찍이 Freud정상(normal)이란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라고 대답한 바 있지만, 낭만적 사랑이란 '정상범위로 간주되는 비정상상태'인 것이다. 낭만적 사랑은 대개가 저 머나먼 어린시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무의식적 결정인자들 때문에 생긴 것으로 대개는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랑은 판단력이 다소간 흐려진 상황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이성적(理性的)으로 깊이 생각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며, 상대방의 용모·표정·냄새·느낌 같은 것에 부지부식간에 끌려서 도출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로맨틱한 사랑보다 다른 요소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서 더 작용한다.

둘째, 독자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어서이다. 젊은 이는 그동안 자랐던 가정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더러는 부모와 함께 사는 데서 오는 '불행'에서 탈출하고 싶어 결혼하는 수도 많다. 예컨대 부모간의 싸움, 부모의 독재와 지배, 부모의 별거와 이혼 같은데서 오는 불행한 가정생활에서 도피하고자 결혼을 한다.

세째,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 매력에 끌려서이다. 이 역시 나무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나 상당수의 경우 그런 결혼은 남들이 짐 흘리는 상대방을 차지함으로써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네째, 안식처를 갖기 위해서 이다. 몸도 마음도 푸근히 쉬고 풀 수 있는 장소와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간다. 이런 필요를 남녀가 서로 터놓고 이야기해 이해하는 선에 이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섯째, 돈과 명예, 또는 신분상승을 노려서이다. 결혼을 통해 경제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 역시 그럴 법하다. 그렇기는 해도 상대방은 뒤에 눈치를 채고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배우자를 팔세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줄부의 딸이 가난한 사범연수원생과 결혼하는 경우 이 둘은 신분상승과 경제력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뒤에 남편이 범조계 유명인사가 되어 다른 여자들에게서 많은 유혹을 받는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는 장인의 경제력 때문에 아내를 버리지 못하며, 아내 역시 남편의 진정함 사랑은 비록 언지 못할정신분상승을 놓치고 싶지않기 때문에 바람피는 남편을 모른 채 한다. 즉 이런 유형의 결혼은 일견 위태스럽게 보이지만 실은 웬만한 갈등에 더 잘 버틴다.

여섯째, 자식 소유욕에서이다. 부부간 사랑이 일차적 동기이고 자식 소유욕이 이차적 동기라면 그 결혼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이 자식 소유욕이 일차적 동기인 경우다. 예컨대 평소 남자들을 미워하는 일방 자식을 유명한 음악가로 키우는 공상을 하며 사는 노처녀가 있다 하자. 그녀는 자기와 사이가 좋지 않은 여동생이 먼저 결혼하여 아기를 낳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젊은 총각 하나를 유혹하다시피 하여 벼락결혼을 하는데, 이때의 남편이란 그 어떤 남자라도 상관없다. 아들을 낳은 직후부터 그녀는 남편을 숭기 없다고 욕박지르며, 남편이 자식 가까이 올까봐 자식을 끼고 키운다.

일곱째, 임신했기 때문에 '팔자소관'으로 알고서 하는 결혼이다. 과거에는 여자쪽에서 임신했을 경우 자포자

기하여 모든 것을 운명에 돌리고 마음에 맞지 않는 태아의 아버지와 결혼하는 일이 많았지만 근래에는 이런 결혼이 크게 줄었다. 이런 결혼은 뒤에 아내라면 임신시킨 상대방을, 남편이라면 임신을 꼬투리로 잡아 결혼으로 자기를 묶어 맨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수치심에서 상대방을 가만두지 않으니 결혼 생활이 썩 행복할 리 없다.

위에 열거한 결혼동기들은 병적(病的)이라 할 수 없는 동기들로서, 대개는 이 일곱가지 동기들 가운데 몇 개씩이 겹쳐 작용한다.

4. 비정상적 결혼동기(非正常的 結婚動機)

결혼은 불순하거나 불건강한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런 특수한 동기들 가운데 몇 가지 대표되는 형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성적(性的)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노총각 대학강사가 자신의 동성애(homosexuality) 성향이 학내에 소문나면 불리할 것 같아 이를 감추기 위해 광신자로 영(靈, spirit)만 찾는 여자와 결혼하였고, 결혼후 그는 여자와 살을 대면 미칠 것 같아 아내와 떨어져 잔다. 그러나 아내는 알고 보니 아기를 많이 가져 보려고 결혼한 여자였고, 그래서 이 둘은 티격태격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목적에서 맺어진 결혼은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많다.

둘째, 정략(政略) 결혼이다.

세째, 화풀이 결혼(the hostile marriage)이다. 여기는 두 형(型)이 있는데, 그 하나가 어느 특정인을 미워서 하는 결혼이다. 즉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 상대에게 적개심을 표현하는 형태인데, 이런 결혼은 위험하다. 뒷에 걸려 애모하게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결혼 상대방도 괴롭고, 또 그렇게 화풀이하는 장본인에게도 해롭다. 조만간 상대방이 반격해오기 때문이다.

예다. 실연 당하고 나서 '네가 나를 차 버렸으니 나도 너를 차겠다!'는 심리에서 아무하고나 무턱대고 결혼해 버리는 경우가 그렇다. 그 속에는 '나를 버린 저 자가 언젠가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달려 와나 없이는 못살겠다고 무릎 꿇고 빌겠거니!' 하는 심보가 있는 것이다.

다른 형은 이성(異性) 전체에 대한 적개심과 선망을

함께 품고 있는 사람이 나약한 사람을 배우자로 골라 두고두고 괴롭히면서 군림하는 결혼을 두고 말한다. 이런 결혼은 상대방을 원수취급하는 형태다. 예로, 어려서 아들만을 위해 주는 어머니밑에서 분노하며 자란 여자가 약한 남자를 골라 결혼해서 평생을 쥐어박으며 사는 경우다.

네째, 구조환상(救助幻想, rescue fantasies)에서이다. 사랑아닌 동정심(同情心)이 발동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대방을 구조해야겠다는 사명감에서 출발한 결혼이 있는데, 이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서 특히 많다. 예컨대, 자기가 동정(童貞)을 받친 창녀와 결혼하겠다는 대학생의 경우, 술주정꾼의 딸과 결혼하려는 모범청년의 경우, 만성정신분열증환자와 결혼해 병을 고쳐 보겠다고 달려드는 간호사의 경우가 있다.

다섯째, 가학피학적 결혼(加虐被虐의 結婚, sadomasochistic marriage)이다. 이는 상대를 괴롭히고 또 반대로 상대에게서 괴롭힘 받으려는 무의식적 동기에서 거기에 맞는 배우자를 골라하는 결혼이다. 이런 부부는 다투고 치고 받음으로써 연거푸 서로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그래서 '언제나 불행한 생활을 한다'고 남들에게 말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싸움에 재미가 들린 듯 다른 원만한 형태의 부부관계를 갖지 못한다. 언뜻보면 가학자(sadist)쪽에서 나서서 피학자(masochist)를 알아보고 배필로 점을 찍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실은 둘 모두가 가학성과 피학성을 함께 지닌 사람들로서 이들은 때에 따라 가학적이 되기도 하고 피학적이 되기도 한다. 이들 부부의 머리는 늘 '당한 만큼 갚아주자!' 라는 명제로 가득 차 있다. 이들 각각의 부모 역시 이들 비슷한 부부관계를 가졌던 고로 어려서 부터 보고 배운 바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결혼생활에의 적응(適應)

1) 적응(適應)의 성패(成敗)

출발이 좋은 결혼은 부부 모두를 안정시켜 준다. 이들의 인생은 새로운 모험을 할 기회를 설새없이 주며, 이들은 서로가 자기를 그렇게 위해 주고 생각해 주리라고는 미처 몰랐다가 당하는 푸근함에 매사가 즐겁다. 고독이 사라지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긴장을 풀어주고 활력을 재충전해 준다. 각자 다소간의 실수는 범하

겠지만 이내 고의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서로 탓하지 않는다.

결혼생활의 어려움은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성격특성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문제가 되는 장본인은 설사 다른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결혼당시 당사자들은 상대방을 완전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을 올리는지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쪽이 성격상 병적(病的) 소질을 지녔더라도 운 좋게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배필을 만났기 때문에 편안한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예컨대 애 낳기 겁내는 여자가 애 없어도 자기만 사랑받고 대우받으면 된다는 식의 남편을 만나는 경우다.

결혼적응 실패의 원인은 모두가 당사자의 개인적 이유에서 온다. 말로는 성적 불만, 개인 위생문제, 시댁과 처가와와의 갈등, 경제적 궁핍, 가치관의 차이, 사회생활과 교우(交友)문제, 과음과 주사(酒邪), 육아문제 등등을 들지만 따져보면 더 깊이에는 부부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의 심리적 미숙과 불안정, 성적 부조화, 성격 조정 실패가 그 원인들이다.

부부불화(夫婦不和)로 처음부터 정신과 의사를 찾는 일은 드물고, 대개는 친구나 은사(恩師), 점쟁이, 성직자(聖職者)를 먼저 찾는다. 또는 불화에서 말미암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정신생리학적 기능부전(psychophysiological dysfunction)을 야기해 환자는 한의사, 가정의(家庭醫), 내과의사, 신경과의사부터 찾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여자의 만성 허리앓이(chronic back-pain)가 짜증나는 성생활을 피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올 수 있다. 또 비만증(obesity)은 사랑에의 굶주림을 먹어서 때우고자 하는 소치에서 올 수도 있다. 난치성 두통을 호소하는 남자를 만나보니 실은 자기 아내가 둔 때문에 결혼하고서도 자기의 성생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추잡하다고 여기는 데에 분노해서 그렇다는 증례도 있다.

2) 결혼과 성격구조변화(性格構造變化)

웃으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양보해주는 것이 신혼때이지만 얼마 지나면 싸우면서 참고 양보하는 것이 보통 부부사이다. 그래서 서로 맞추느라고 부부 각자의 성격이 야금야금 변해 간다. 즉 결혼은 실제로 모든 부부 각자의 성격구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향을 미친다.

첫째, 결혼은 부부 각자의 자아기능(ego function)에 영향을 미친다. 잘 사는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욕구와 필요 안경을 자기의 욕구와 안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주의 깊게 경청하게 된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자기의 대체자아(代替自我, alter ego)가 된다.

또 이들 부부는 다른 사람들 생활을 보고 배우고 따라 가려 애쓰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기의 면모와 성격이 변한다. 이런 변화는 여자쪽에서 남자쪽보다 더 빨리, 더 크게 온다.

둘째, 부부 각자의 초자아(superego)에도 변화가 생긴다. 상대방의 가치관이 내가 이제껏 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가치관을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꼬장꼬장한 선비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편이 자기 아들 초등학교 담임선생에게 촌지를 보내자는 아내에게 처음에는 호통을 쳤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친정 아버지를 둔 아내의 설득으로 인사치레 정도의 촌지를 보내는 데에 마침내 동의하는 경우다.

셋째, 결혼은 부부 각자의 이드 충동(id impulse)에도 영향을 끼친다. 즉 결혼해서 생긴 초자아의 변화에 따라 부부 각자는 이드의 충동도 성질이 변한다. 예컨대 처음에는 해피망척스럽다고 화를 내던 아내가 거둬지는 남편의 설득에 힘입어 누드 쇼를 동반 참관케 되고, 나아가 포르노 비디오까지 부부가 함께 보게 되는 경지로 발전하는 경우다. 부부 각자는 자기의 성적 욕구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걸어오는 성적 체스추어에 더 자극받을 때가 많다.

네째, 결혼은 부부 각자의 자아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s of the ego)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부 어느 한쪽이 스스로 불안(anxiety)을 누르기 위해 쓰는 방어기제가 비록 까다롭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손 쳐도 다른 쪽에서 자기를 조금 죽이면서 편하게 동조해 줄 수도 있다. 예컨대, 남편이 유난스럽게 마른 여자 몸매를 좋아한다 할 때 아내는 자기가 비록 비만증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맞추기 위해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줄이는 경우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고배도 많다. 예컨대 아내가 청결을 요란스럽게 강조하며 남편 몸이 더럽다 해서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하려 든다면 이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듯 한쪽이 병적(病的)일 정도인 방어기제를 쓸

때 다른 쪽 마저 거기에 완전 동조한다면 이는 이인성 정신병(二人性 精神病, folie à deux)이다.

다섯째, 부부 각자에게서 배우자 편친(片親)과의 동일시(identification)가 생길 수 있다. 결혼하고 지내다 보면 남편은 장인을 닮아가고, 아내는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 예컨대, 농촌출신의 새파란 판사가 대법관 딸과 결혼하였는데 얼마 지나니 모르는 사이에 그의 제스처·목소리·가치관·정치관·야심이 장인을 닮아가는 경우다. 이는 장인을 존경한 나머지 결혼하게 된 탓도 그에게 있지만 실은 아내가 그녀가 좋아하는 친정아버지를 닮은 그를 보고 선뜻 결혼한 뒤 부지부식간에 남편 성격을 더욱 친정아버지 성격쪽으로 발전하게 복돋아 주었던 것에 기인한다. 장인뻘은 사위는 찾아보면 도처에 깔렸는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 이성편친(異性片親)을 닮은 상대와 사랑에 빠지는 율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3) 새 아버지로써의 배우자(配偶者)

결혼해서 얼마 살다보면 남편은 자칫 아내를 자기 어머니처럼 보고, 아내 또한 남편을 친정아버지처럼 볼 때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있다. 즉 서로가 배우자를 옛날 자기 아버지처럼 보는 '절반 아버지 전이'(半父母轉移, the transference of parental traits to the spouse)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결혼 할 때부터 이성편친을 닮은 사람을 무의식에서 배우자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 서로는 부지부식간에 상대방의 그렇게 보는 눈을 조금은 받아들여 때때로 '아버지 역할'을 상대방에게 해 주게 되는데, 이는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성숙한 사람이라 해도 가끔 자기는 어린애처럼 굴면서 배우자에게서 옛날 어리광을 받아주던 아버지의 이미지를 찾는데, 이때 그런 정도가 심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웬만한 것은 괜찮거나 또는 오히려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예컨대 평소 당당한 가장(家長)이라해도 아프거나 속상할 때는 아내가 엄마처럼 보살펴주고 격려해주시기를 바라며, 또 그래야 마땅하다. 아내 역시 자신이 궁지에 몰리는 경우 남편이 부모처럼 그녀를 감싸주고 역성들 것을 바랄 것이다. 이렇듯 부부간은 서로 주고 받아야 하며, 받고 싶다면 '먼저 주어야' 하는데서 오는 위험 부담쯤은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배우자를 아버지 전이를 가지고 대하는 데서 더러 문

제도 발생한다. 결혼하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배우자가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라면 화가 날 터이다. 또 상대방이 자기가 싫어했던 자기 아버지가 이미지를 풍긴다면 이때도 상대방을 닮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다. 남편이 저녁식탁에서 하는 반주가 한 잔 일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두 잔을 넘어가면 발작을 일으키는 아내가 있다. 이제 곧 술 취한 남편이 시비를 걸어오고, 상을 뒤집어 었을 것이며, 뛰쳐 나갔다가 자정이 넘어 대취해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겁이 지레 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그녀 친정아버지는 평소에는 신사였지만 술만 들어가면 밤새 가족들을 들볶았던 것이 그녀의 어린 시절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격정과 분노에 찬 나머지 이혼까지도 생각해 보는 어처구니없는 환상에 잠혀 있었던 것이다.

다른 예다. 저녁 늦게 귀가할 때면 어깨에 힘 주고 싸울 듯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남편이 있다. 알고 보니 그는 총각시절 늦게 귀가할 때마다 어머니에게서 야단을 맞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개업의사 딸로 커서 친정아버지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음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아 마냥 즐겁게 맞아들이고 있었다.

자라면서 이성편친에게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결혼후에 배우자에게서 찬사받기를 원하며, 그 칭찬을 못 받으면 화를 낸다. 이는 똑똑하다는 부부일수록 더 하다.

중심 단어 : 청년기 · 성인기 · 결혼 · 직업.

REFERENCES

- 李載昇(1996) : 인격발달. 민성길 외, 최신정신의학(제 3 개정판), 서울, 一潮閣, pp86-91
- 趙斗英(1985) : 臨床行動科學, 서울, 一潮閣, pp9-16
- 趙斗英(1994) : 結婚과 離婚. 精神醫學 19 : 127-148
- 洪剛義(1997) : 인간의 발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神經精神醫學, 서울, 하나의학사, pp35-54
- Gemelli R(1966) : Normal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Washington, American Psychiatric Press
- Havighurst RL(1972) :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尹振著,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 적성

- 출판사, 1985 pp40-43에서 引用)
- Levinson D(1978) : *The seasons of a man's life*(尹振著,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5, pp48-49에서 引用)
- Lidz T(1983) : *The person : his development through the life cycle*(revised edition). New York, Basic Books, pp376-466
- News Plus(1997) : 한국 東亞日報社발행 週刊時事誌. 1997년 4월 24일호, pp72-73
- Seil DE(1974) : *College psychiatry*. In : *Handbook of psychiatry*. Salomon P, Patch VD(eds.), third edition, Japan, Lange & Marnzen, pp589-605
- Sofer C(1974) : *Occupational difficulties in adulthood*. In :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Arieti S (ed.), second edition, New York, Basic Books, volume 1, pp428-445